

# 문제중심학습 워크샵에 관한 의견 조사

양 은 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 I. 서 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자율학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1997학년도부터 문제중심학습을 도입하여 실시하여 왔으며, 문제중심학습에 대한 교수 워크샵을 통해 교수 개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그 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중심학습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1999년 12월 1일(수)~12월 3일(금)에 걸쳐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의 교수 및 일반 기업체 연수기관의 연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1999년 문제중심학습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샵에는 18개 대학 및 1개 기관에서 총 47명이 참석하였다.

본고는 1999년 시행된 문제중심학습 워크샵 참석자 47명에 대하여 문제중심학습 워크샵의 개선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의견을 분석한 것이다.

## II. 문제중심학습 워크샵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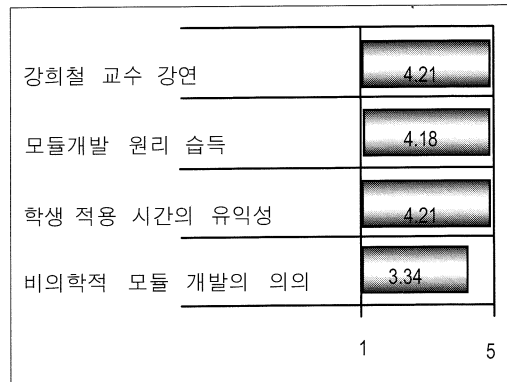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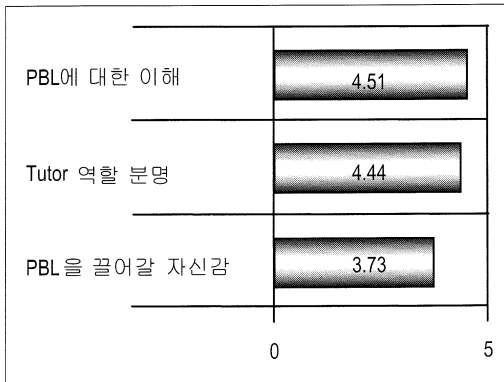
3일간의 워크샵 일정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참석자 47명 가운데 41명이 응답해 87.23%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설문지 구성	문항수
1. 문제중심학습 과정: 학생으로서의 경험	4
2. 문제중심학습 모듈개발	5
3. 강연	6
4. 워크샵 준비 및 진행에 대하여	4
5. 기타 문항	5

### 1. 문제중심학습 과정: 학생으로서의 경험

대체적으로 학생으로서 경험해본 문제중심학습 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문제중심학습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Tutor의 역할도 상당히 분명했다고 응



답하였다. 또한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 문제 중심학습 과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크게 Tutor의 역할 부분, PBL 개념 확립, PBL 진행상의 문제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다. 좋은 Tutor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비디오나 지침서를 제공하여 Tutor의 역할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 problem-based learning과 problem solving의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본개념을 설명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외에는 참가자들에 대한 충분한 소개가 불충분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 2. 문제중심학습 모듈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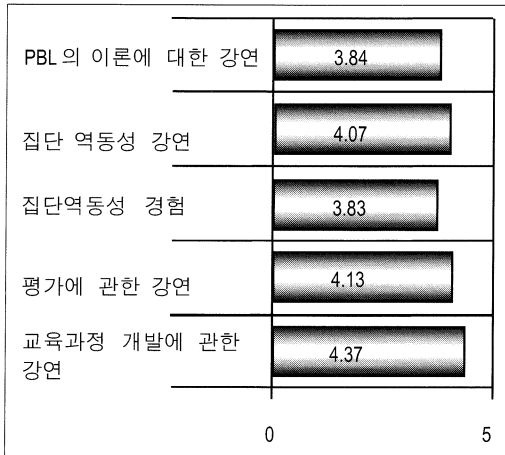
모듈개발 절차에 관한 강연은 모듈개발에 매우 필요했으며, 이 경험을 통해 모듈을 개발하는 원리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개발한 모듈을 학생들에게 실제 적용해 보는 시간에 대해서도 매우 유익하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의학적 모듈을 개발해 보는 것이 모듈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으로 모듈개발에 대하여서는 시간 부족과 충분한 평가과정과 토론시간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발된 모듈을 학생에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오히려 PBL 개념을 혼동하게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비의학적 모듈의 내용은 의료 윤리 등 의학교육과 연관이 있는 내용을 선정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 3. 강연

문제중심학습을 이해하는데 있어 대체적으로 강연부분이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수의 강연이 각각의 주제를 이해하는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역동성이 PBL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으로 우선 강사선정에 있어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PBL 경험이 없는 강사는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고, 강의 자료 준비가 미비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양을 제한된 시간 안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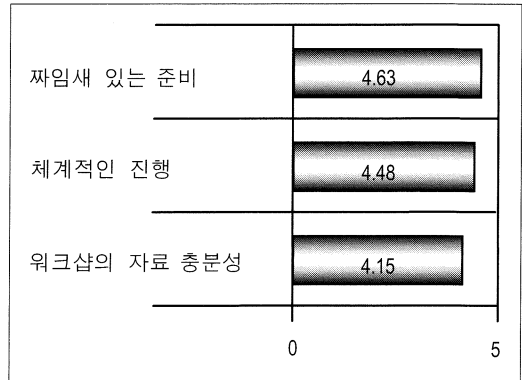


하려는데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강의시간을 줄이고 질의, 응답 및 토의 시간을 늘릴 것을 제안하였다.

#### 4. 워크샵 준비 및 진행에 대하여

워크샵 준비 진행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였다. 워크샵의 준비가 짜임새 있게 잘 준비되었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워크샵에 사용된 자료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워크샵의 준비 및 진행이 상당히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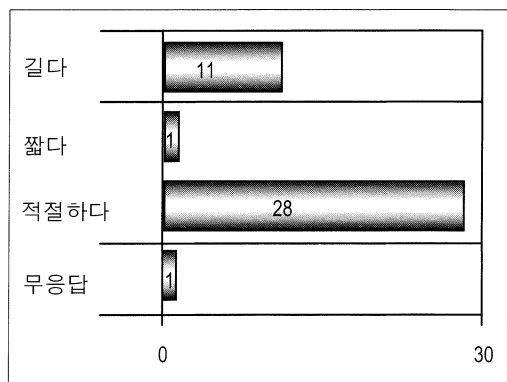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각 단계간에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소그룹 활동의 시작과 끝나는 시간이 잘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강연보다는 질의 응답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5. 기타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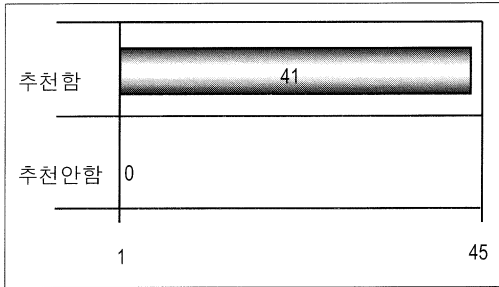
##### 1) 워크샵 일정

워크샵 일정에 대한 의견은 대체적으로 적절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너무 길었다’는 의견이 11명(26.8%)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적절한 기간으로 10명이 2일간, 1명이 1일을 제시하였다. 반면 워크샵 일정이 너무 짧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명으로 4~5일 일정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2) 추천 여부에 대한 의견**

이번과 같은 워크샵에 참석하라고 다른 분에게 추천하겠는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가 모두 추천하겠다고 하여 본 워크샵에 대해 상당히 만족했음을 알 수 있다.



**3) 이번 워크샵에서 가장 좋았던 점에 대한 의견**

대체적으로 진행자의 친절과 성의를 다한 모습, 철저한 시간관리와 체계적인 프로그램, 조별활동을 통한 실제 경험들, PBL에 대한 개념 확립에 있어서 좋은 느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4) 이번 워크샵에서 아쉬웠던 점에 대한 의견**

대체적으로 강의 시간이 길고, 질의, 응답 및 토의 시간이 짧았다는 것, 딱딱한 일정, PBL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5) 기타 의견**

대체적으로 PBL에 대한 개념 정립에 많은 도움이 되는 워크샵이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워크샵이 될 수 있도록 주제별로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거나 또는 참가자의 수준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해 보는 것, web-based learning과의 연계 방안 등의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III. 결론**

「1999년 문제중심학습 워크샵」을 통해 참가자 대부분은 문제중심학습의 개념을 확립하고 이해할 수 있었으며, PBL의 핵심인 모듈개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개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집단 활동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학생으로서의 문제중심학습 경험뿐만 아니라 Tutor로서의 문제중심학습 경험에 대한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모듈개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개념을 파악하는데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특히 개발한 모듈을 의학과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해 봄으로써 더 많은 흥미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듈개발의 실재를 다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지적과, 오히려 학생들에게 적용함으로써 PBL 개념에 대해 더 혼돈을 유발시켰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또한 강연부분을 통해서도 PBL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가자 대부분의 특성이 의대 교수들이므로 비의학분야 강사 선정에서 오는 관점의 차이점을 많이 지적하였다. 또한 강의 시간보다는 오히려 질의, 응답 시간이 더 배정

될 필요가 있고 참가자 전체가 자유롭게 논의 해볼 수 있는 자유토론 시간 등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워크샵 전체적인 진행에 있어서는 대체로 정확한 시간관리와 배정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준비위원회의 열성과 정성을 느낄 수 있는 워크샵이었다고 반응하여, 3일간의 워크샵에 대해 많은 참가자들이 긍정적인 반응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1999년 문제중심학습 워크샵」 설문결과와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을 고려할 때, 「2000년 문제중심학습 워크샵」을 위한 몇 제언을 하면서 본 보고서를 마감하고자 한다.

첫째, 워크샵의 주제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금번과 같이 3일 동안에, Tutorial Process, 모듈개발, 집단역동성 등을 전부 다

룰 것이 아니라, Tutorial Process 워크샵, 모듈개발 워크샵, 집단역동성 워크샵 등으로 세분화하여 좀더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워크샵을 초급, 중급, 고급반 등으로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금번 워크샵에서도 참가자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여 PBL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개념을 파악하고 Tutor의 경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보다 효과적인 워크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가자의 수준을 나누어 단계별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제중심학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학습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 절차적 방법, 교육과정의 편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의하고 연구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